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

Vol.08 겨울철 생활안전 편



CONTENTS

-
- 01 SAFETY GRAPHIC**
생활안전, 겨울에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
-
- 02 SAFETY NOW**
안에서도 밖에서도 안전하고 볼 일이다
-
- 03 INTERVIEW**
제3기 세종시 안전도시위원회 송두범 위원장
-
- 04 SAFETY CHECK**
전동킥보드 이것만 알고 타면 '안전!'
-
- 05 SAFETY TIP**
세종시에서 겨울을 만끽하는 방법
-
- 06 SAFETY MANUAL**
안전하게 겨울나도록 기억해주세요.
-
- 07 코로나19 행동수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

안전까지 꼼꼼 얼지 않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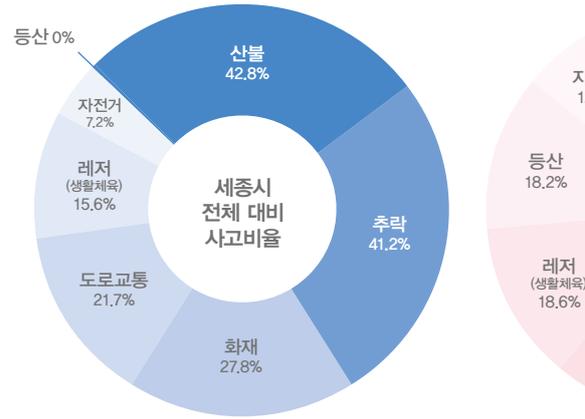
생활안전, 겨울에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

겨울에는 폭설, 한파 등의 재해도 재해지만 건조하고 추운 날씨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것만으로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 겨울철 생활안전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2019 재난연감(사회재난)



생활안전사고 현황 2019년 기준



세종시 생활안전사고 발생 건수(발생 비율 순)

분야	산불	추락	화재	도로교통
전체 사고건수	7건	17건	191건	917건
겨울철 사고건수	3건	7건	53건	199건

전국 생활안전사고 발생 건수(발생 비율 순)

분야	산불	화재	도로교통	추락
전체 사고건수	653건	40,103건	229,600건	5,000건
겨울철 사고건수	197건	11,080건	50,852건	966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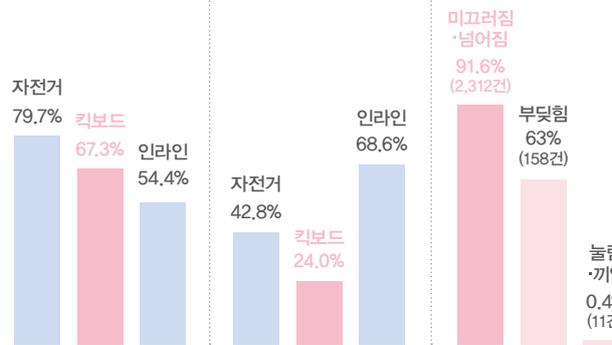
생활안전사고 중 겨울철(12월~2월)에 유난히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이 두 가지 분야의 경우 전국 기준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작은 실수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주

킵보드 안전사고 현황 201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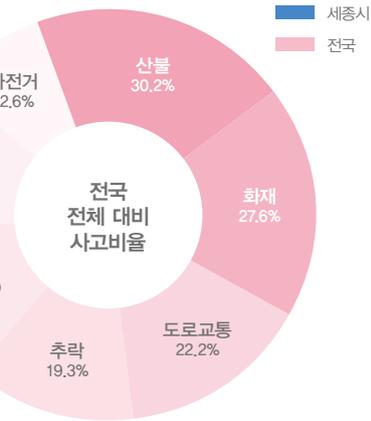
어린이가 가장 많이 타는 이동 놀이 수단

안전장비 착용률

킵보드(수동) 운전 안전사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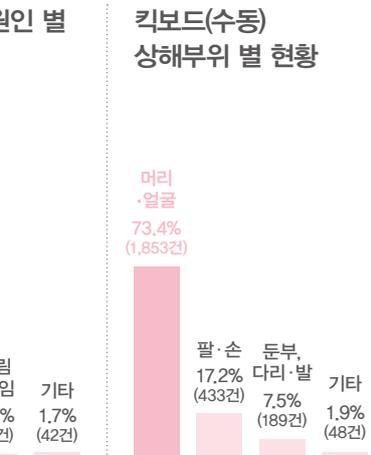


조사에 따르면 이동 놀이 수단을 탈 때 안전장비 착용률은 인라인스케이트가 가장 높았다. 어린이가 킵보드를 탈 때는 안전장비 사고 시 대처 요령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구분	세종시	전국
레저(생활체육)	96건	1,100건
자전거	194건	5,395건
등산	8건	5,135건
추락	15건	205건
도로교통	14건	982건
기타	0건	649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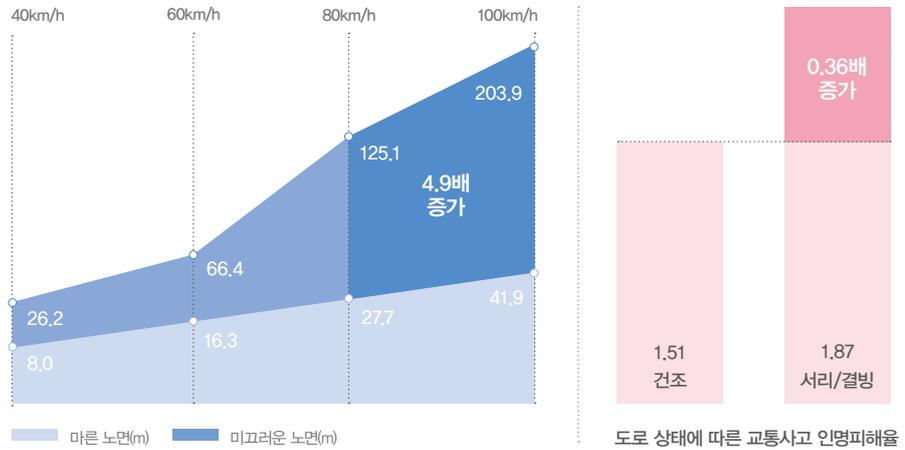
분야는 산불과 추락이다.
수로 큰 피해를 입히는 산불과
의가 필요하다.



이트가 68.6%로 가장 높았고,
를 잘 갖추도록 지도하고,

오전 6시~10시, 빙판길 교통사고의 40.3% 발생!

마른 노면과 미끄러운 노면에서 속도별 제동거리 및 인명피해율



아침 시간 교통사고가 많은 이유는 미끄러운 도로에서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이다.
속도에 따른 제동거리 실험(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도로가 마른 상태일 때보다 살얼음 등으로
미끄러울 때가 최대 5배(100km/h, 41.9m→203.9m)까지 길어진다. 특히, 도로 노면 상태에 따른
인명피해율은 서리가 내렸거나 결빙(살얼음 포함)되었을 때 1.87배까지 증가하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빙판길(살얼음 포함)에서의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낙상사고 환자는 겨울철에 가장 많이 발생!

2012~2016 월평균 요추·골반 및 대퇴골 골절 환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넘어지거나 부딪치는 등의 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추·골반 및 대퇴골 골절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2,523,532명이었다.
빙판이 생기는 12월에는 요추·골반의 골절 환자수가 월 평균 28,239명으로 가장 많았고
1월에는 대퇴골 골절 환자수가 월 평균 16,855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추운 날씨에는 근육이나
관절 등이 경직되어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균형을 잃고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SAFETY MANUAL

안전까지 꼼꼼 얼지 않도록

안전하게 겨울나도록 기억해주세요.

미국 국립빙설자료센터(NSIDC)에 따르면 북극 얼음이 1979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이 녹았다고 합니다. 북극 얼음이 많이 녹게 되면 러시아와 유럽에 인접한 카라-바렌츠해의 얼음도 상당히 많이 녹기 때문에 올 겨울 우리나라에 매서운 한파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겨울은 눈이 있어 낭만적인 계절이기도 하지만 과하면 모자람만 못하다고 폭설이 내리더라도 하면 온 도시가 마비되는 큰 피해를 낳기도 합니다. 어떤 추위가 찾아오더라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겨울나도록 기억해주세요.

이불 밖은 추우니까 꼼꼼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 심장과 혈관·호흡기·신경 계통, 피부병 등은 급격히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유아와 노인 또는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신경 써야 합니다.

꼼꼼 언 물을 녹이는 미지근한 물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갑자기 뜨거운 열을 가하지 말고 헤어드라이기 등의 온열기를 이용하여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로 녹여야 합니다.

안전이 산으로 가지 않도록 금주!



야외 활동 시 음주는 몸의 체온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자제하고, 장갑과 목도리 등 방한용품으로 체온 유지에 신경 써야 합니다.

안전까지 미끄러지지 않도록 보호!



스케이트를 탈 때는 다른 사람과 적정 거리를 유지하여 부딪히지 않도록 합니다. 발에 꼭 맞는 스케이트를 착용하고 장갑과 안전모, 무릎 보호대 등을 착용하세요.

미끄러미끄러 빙판길 꺼내면 안전



꽁꽁 언 빙판길에서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면 위험합니다.
꼭 장갑을 끼고 손을 빼고 걷고 도심형 아이젠을 활용해 미끄러움을 최소화하세요.

안전이 잘 보일 수 있게 치워주세요



눈이 쌓이면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눈이 그치면 내 집, 내 점포 앞에 쌓인 눈을 치워서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꽁꽁 언 위험이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끝이 뾰족하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 매우 위험한 대형 고드름을 발견하면
119에 신고하고 쌓인 눈은 미리 치워서 고드름이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남만의 탈을 쓴 미세먼지



눈이 오는 날에는 꼭 우산을 써서 초미세먼지가 섞인 산성눈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눈을 맞았다면 옷은 바로 세탁하고 깨끗이 샤워하세요.

안전한 일상을 위해 기억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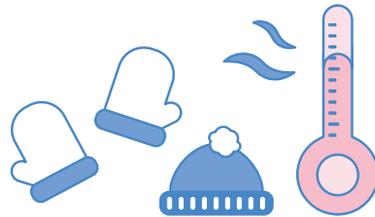
겨울철 국민행동요령

올 겨울은 한파와 대설이 예보돼 있습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일상을 위해 한파 및 대설 행동요령을 미리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한파 행동요령

- 1 노약자, 영유아 등을 위해 난방과 온도 관리에 유의
- 2 외출 시 등상에 걸리지 않도록 보온에 유의하고, 등상에 걸렸을 경우 따뜻한 물에 30분 가량 담그고 온도를 유지하며 즉시 병원 방문
- 3 수도계량기, 보일러 배관 등은 헨 옷 등으로 보온하고, 장기간 외출 시에는 온수를 약하게 틀어 동파 방지
- 4 양식장에 월동장을 설치하고 방풍망 준비
- 5 무리한 신체활동이나 장시간 야외활동은 자제하고, 주기적으로 따뜻한 곳에서 휴식하기



대설 행동요령

- 1 평상시 TV, 라디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 등을 통해 대설 기상상황 파악
- 2 대설 예보 시 대중교통 이용 및 눈 피해 대비용 안전장구(체인, 모래주머니 등) 준비
- 3 대설 특보 시 외출을 자제하고 내 집 앞, 보행로 및 지붕 등에 쌓인 눈을 치워 사고를 예방
- 4 산간 고립 우려 지역에서는 식량, 연료 등 비상물품을 준비
- 5 차량 운행 시 저속 운행하고 안전거리 확보





SAFETY NOW | 안전과 함께 집콕!

안에서도 밖에서도 안전하고 볼 일이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세~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집의 의미와 일상생활의 변화를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 이후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증가한 변화가 눈에 띄었으며, 특히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서 '집의 가치'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다는 의견(84%)이 2015년 조사(56.9%) 때보다 훨씬 많아졌다. 최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한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고(66.9%, 중복응답),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장해(64.3%)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면서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증가한 것도 한 몫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겨울이라는 방해물이 있다고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것은 아니다. 출근, 생필품 구입 등 꼭 필요한 외출도 있게 마련이기 때문. 따라서 안에서도 밖에서도 안전하려면 기본적인 겨울철 생활안전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우선 겨울철에는 각종 전열기구(전기난로, 전기요 등)의 이용량이 늘어나면서 멀티탭 사용도 증가하게 된다. 다양한 전기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 뿐만 아니라 화재의 위험도 증가하게 되는 것. 하나의 콘센트에 하나의 전열기구만 연결하고, 사용 전 전선이 망가진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전열기구 근처에는 가연성 물질을 놓아두면 안 된다. 또 동파 방지를 위한 준비도 필수. 수도계량기 보호를 위해 보호함 내부는 헛 옷으로 채우고 외부는 찬 공기 유입 방지를 위해 테이프를 붙여 두어야 한다. 장기간 외출 시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고, 외부로 노출될 수도관이나 보일러 배관은 보온재로 감싸줘야 한다. 만약 수도관이나 보일러 배관이 얼었을 경우 헤어드라이어나 따뜻한

물 등으로 서서히 녹여야 한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목도리, 장갑, 모자 등 방한용품 착용하여 체온 유지에 신경 써야 한다.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것은 보행안전이다. 빙판길에서는 반드시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길 가장자리로 걸어야 미끄러짐으로 인한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최근 이용률이 높아진 전동킥보드의 경우도 낮 동안 내린 눈이나 비가 길 틈새에 스며 들었다가 얇게 얼어붙는 '블랙아이스'를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블랙아이스는 눈에 잘 띄지 않아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에 보호장구 착용은 필수다. 무엇보다 전동킥보드는 통나무 타이어가 장착된 경우가 많아 브레이크 밀림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제동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겨울철 야외 운동 시 부상 방지를 위해 운동 전 스트레칭은 필수. 또 겨울철에는 체온 유지를 위해 10~15%의 에너지가 더 소비되기 때문에 운동 강도를 평소의 70~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말 기본적인 안전수칙이기에 이미 알고 있다는 이유로 무시해 넘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안전은 사소한 것에서 무너지고, 또 더욱 튼튼해지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겨울철 생활안전수칙을 지키며 안전한 겨울을 나도록 하자.

글 | 유정(오세이프 에디터)

* 참고자료: 코로나 시대와 '집'의 의미, 매드타임즈, 2020.06.12

SAFETY CHECK

전동킥보드 관련 법률, 이렇게 바뀌었어요! 전동킥보드 이것만 알고 타면 '안전'!

전동킥보드 관련 법률이 지난 12월 10일부터 개정됐다. 「도로교통법」 개정*(6.9 공포, 12.10 시행)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하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진 것. 그러나 이용 연령 하향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PM의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PM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꼭 확인하고 이용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전거도로 통행, 이용연령완화(만 16세→만 13세), 안전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부과

글 | 오호라(오세이프 에디터)

1 공유 PM의 대여 연령 제한

-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고, 만 16세와 만 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게 한하여 대여를 허용하며, 6개월 동안 시범 운영된다.

2 주정차 및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PM 이용 질서 확립

- 전동킥보드 등 운행 시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치명적 사고 유발 행위를 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하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 및 계도 강화
- 마련된 PM 주·정차 가이드라인(▲보도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주차 가능)을 전국으로 확대·보급하여 주·정차 질서 확립

3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

- PM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가, 공원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캠페인 실시
- 카드뉴스·웹툰 등 홍보물 제작, 유튜브·SNS 등을 통한 온라인·모바일 홍보

- 교통안전교육에 PM 이용 시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강조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실시
- 중고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하는 등 학교 내 교육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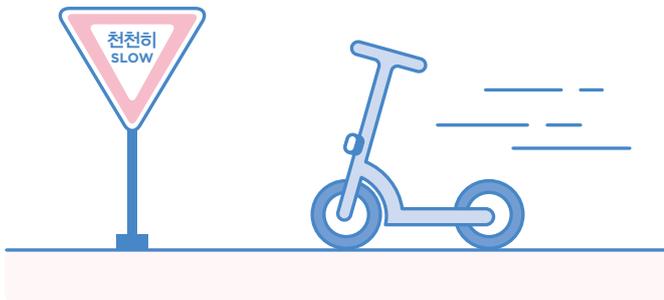
4 중·장기적인 제도개선도 추진

- PM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률(대여사업 신설 및 등록제 운영, 거치제한구역 지정,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연내 제정
- PM을 불법으로 개조한 자나 개조하여 운행한 자에게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추진
- 안전성 강화를 위해 협의체를 통해 속도 하향 및 바퀴 크기 등 안전기준을 논의하고, 개인적으로 PM을 소유하는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자체 단체보험 개발 및 가입을 독려
- 대여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공유서비스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 및 불편 완화
- PM 이용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주행유도 노면표시 신설방안 검토 및 안전표지 확충 등 자전거도로 시설 정비 및 관련 설계기준 마련

안전을 이용해 주세요!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수칙

최근 길을 걷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동킥보드다.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서 규제가 낮아진만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시민의식이 더욱 필요해졌다.



전동킥보드 주행 전 안전수칙

- 안전모 착용 필수
- 브레이크 핸들, 타이어 공기압 등 기본 점검 후 탑승

전동킥보드 주행 시 안전수칙

- 아무리 바빠도 신호는 꼭 지키기
-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감속, 가속 삼가기
- 야간 전조등, 후미등을 켜고 주행하기
-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이용 자제
- 역주행 절대 금지
- 킥보드 한 대당 1명만 탑승하기
- 지그재그 운행이나 곡예 운전 하지 않기
- 주행 중에 휴대전화 사용금지
- 전동킥보드 이용자 음주운전 절대 금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
-음주운전으로 타인 치상: 1~15년 징역 또는 1천~3천만 원 벌금
-음주운전으로 타인 사망: 최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INTERVIEW | 제3기 세종시 안전도시위원회 송두범 위원장

겨울철 생활 안전! 이것만은 꼭~

겨울은 계절적인 특성으로 각종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계절이죠. 방심하면 자칫 큰 사고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안전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제3기 세종시 안전도시위원회의 송두범 위원장과 함께 겨울철 생활안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프리랜서 작가 이윤숙(이하 작가) |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송두범 위원장 (이하 송) | 저는 충남연구원의 수석연구위원으로 재직 중 인데요. 제3기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연기군이 충남도 소속이었을 때부터 연기군 발전을 위해 연구를 수행해 왔고요. 세종시 출범 이후에는 행정 수도 완성과 도시 계획 등에 관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작가 | 제3기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셨는데요. 안전도시위원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송 | 안전도시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는데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관련 기관의 업무 분담, 조정 지원, 안전 도시 추진 상황 점검과 평가 그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교육 등 안전도시 발전 방안 전반에 대한 것들을 심의,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가 | 그럼 이 안전도시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고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송 | 세종시 안전도시위원회는 세종시청 안전 담당 공무원, 경찰과 소방 공무원, 민간 전문가, 시민, 언론인, 시의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직인데요.

세종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이 취약한 곳들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현장 실사를 진행한 다음 세종시 관련 부서와 행복도시건설청을 비롯한 중앙부처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요. 위원회 차원의 권고사항들을 제시하여 제기된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해결되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가 | 이번 달 매거진의 주제가 생활안전인데요. 생활안전이라 함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고, 왜 생활안전이 중요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송 | 생활안전이란 다양한 형태로 정의될 수 있는데요. 생활안전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요인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종 시민의 거주 및 생활공간에서 언제든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개인의 생명과 신체적 손상을 가져와 시민의 삶의 질 저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세종 시민의 안전한 삶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고 안전취약 지역을 개선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가 | 현재 세종시의 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를 해 보신다면 몇 점 정도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송 | 행안부에서는 해마다 지역안전등급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를 근거로 세종시의 안전을 평가해 본다면 범죄·자살·화재 분야는 1등급이고,

감염병은 2등급으로 양호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나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5등급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이 전년대비 50%가 감소하여 전국 1위를 차지하였고, 어린이 교통 사고율 역시 전년대비 약 50%가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과 자원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가 | 요즘 날씨가 참 매섭습니다. 겨울철에는 어떤 것들에 주의를 해야 하는지 생활 속 안전 수칙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송 | 겨울철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기온이 낮고 강풍이 불어 화재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한파와 폭설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세종시는 겨울철 기온이 낮고 교량 등이 많아 빙판길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이고 공사장이 많아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중점을 둔 동계 안전 대책에 각별히 노력해야겠습니다.

작가 | 겨울철에는 '도로 위의 암살자'로 불리는 블랙아이스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송 | 세종시는 교량이 많아 한파와 폭설 이후 블랙아이스가 생기기 쉽습니다. 도로 위 열선을 깔아 얼음을 녹이거나 도로 착공 시 결빙을 막을 수 있는 보온재를 넣어 예방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쉽지가 않죠. 때문에 감속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과속 방지 장치,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보완하고 겨울철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운전자들의 안전 교육들도 선행되어야겠습니다.

작가 | 세종시의 생활안전에 대해 오래 고민해 오셨는데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송 | 도시의 모든 중심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차도를 줄이고 인도를 크게 늘리는 추세인데요. 간혹 세종 시민들 중에 도로가 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종시가 사람이 걷기 편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교통 체계 역시 차량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가 | 요즘 코로나와 한파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겨울을 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송 | 안전사고는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는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노력과 자치단체의 제도정비, 그리고 인력과 재정확충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폭설이 잦은데요, 스스로가 내 주변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집 앞의 눈은 스스로 치워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한 분의 안전이 자치단체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과 국민 행복의 원천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취재 | 이윤숙(프리랜서 작가) 사진 제공 | 대전세종연구원



어떤 사고로부터도 안심할 수 있는 방법, 세종시 시민안심보험을 알고 계신가요?

세종시가 시민안심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종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 없이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사고로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고로부터도 안심할 수 있는 방법, 알아두면 더 유용하겠죠?

세종시 시민안심보험

- 피보험자**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보험료** 세종시청에서 일괄 납부
- 사고처리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 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
 T 02 6900 2200 F 0505 136 0128
- 보험료청구** - 청구사고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사고 통보 (접수) 및 보험금 신청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공제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통장 사본 등 제출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세종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 원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 사망	세종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 원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 후유장애	세종 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세종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세종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세종 시민(만 12세 이하)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 원 ※부상등급(1~5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세종 시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300만 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애	세종 시민이 뺑소니 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 발생	300만 원 한도

SAFETY TIP

안전까지 꼼꼼 얼지웁츠러들지 말고,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나기 않도록

세종시에서 겨울을 만끽하는 방법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데, 추운 겨울까지 찾아와 더욱 움츠러들게 됩니다. 하지만 일상은 계속되고, 또 계속되어야 하죠. 어떻게 하면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움츠러든 몸과 마음을 쭉 펴고, 겨울을 만끽하다 보면 끝날 것 같지 않던 코로나19도, 겨울도 끝나 있을 겁니다.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세종시의 나들이 명소를 소개합니다.



겨울을 잊은 그대를 위한 곳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 온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8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끝에 세종 시민들의 품으로 한 발짝 가까이 들어온 공간은 바로 국립세종수목원(원장 이우미)입니다. 온대 중부지역의 식물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우리의 전통 정원 문화를 발전시키며 도심 속 녹색문화 체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국내 최대 식물 전시 유리 온실인 사계절 온실과 조상들의 정원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한국전통정원, 예술작품으로 평가받은 분재를 전시한 분재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도심형 국립수목원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 추천 코스



- 1코스**
 난이도 ★
 거리 1.8km
 소요시간 1시간
- 2코스**
 난이도 ★★
 거리 2.3km
 소요시간 2시간
- 3코스**
 난이도 ★★★
 거리 3km
 소요시간 3시간

국립세종수목원 이용 안내

개요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수목원로 136 연락처 044-251-0001 홈페이지 https://www.sjna.or.kr
개관일	개관 매주 화요일~일요일 휴관 월요일, 1월 1일, 설, 추석 당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휴관)
관람시간	하절기(3월~10월) 평일/주말 09:00~18:00 (입장마감 17:00) 동절기(11월~2월) 평일/주말 09:00~17:00 (입장마감 16:00)
입장료	성인 개인(5,000원), 단체(4,000원) 청소년 개인(4,000원), 단체(3,000원) 어린이 개인(3,000원), 단체(2,000원) ※ 코로나 19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 시행중이며, 37.5도 이상이거나 마스크 미착용 고객은 입장 제한 (동시 관람객 3,000명 제한)

뜨는 해, 지는 해
모두 만나기 좋은 전월산



전월산을 오르는 방법은 세종리 은행나무에서 오르는 방법과 무궁화 테마공원에서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정상까지 오르고 나면 탁 트인 풍경과 세종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와 가슴 속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죠. 무엇보다 전월산 정상에 오르면 아름다운 일출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들이 많아서 상여바위 위에 올라서야 하지만 전월산에서 보는 일출은 그야말로 절경입니다. 고단했던 2020년을 잘 떠나보내고, 일출을 보면서 새로운 2021년을 힘차게 맞이해 보는 건 어떨까요?

겨울의 전월산, 안전하게 오르는 꿀팁!



산행 전·후 반드시 준비운동을 통해 부상을 예방한다.



무리하게 걸거나 무거운 가방을 메면 탈진할 수 있으니 휴식은 필수.



탈진하지 않도록 고열량 간식과 따뜻한 물을 준비한다.



조산 시 국가지점번호를 바탕으로 신고하면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다.



눈 쌓인 산에 오를 때는 반드시 아이젠을 착용해야 한다.



혈액순환과 체온 조절이 쉽도록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것이 좋다.

개인별 건강상태 확인 후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세종에서 즐기는
겨울스포츠

2022년 세종 반다비 빙상장 개장

동계스포츠 불모지였던 세종시에 장애인형 실내빙상장이 건립돼 세종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일상 속에서 동계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내 빙상장은 지하2층, 지상1층으로 연면적 4,500㎡ 규모로 건립되며, 국제규격(61×30m)에 맞는 아이스링크장이 설치돼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아이스하키 경기 등이 가능합니다. 전국 최초의 장애인형 빙상장으로 조성되어 샤워·타워실, 수중 운동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BF(Barrier Free) 인증 기준에 맞게 건립할 예정입니다.



겨울철 안전한 도로주행을 위한 필수 Tip

겨울철에는 차량점검 및 관리가 중요합니다. 따뜻한 날씨에는 큰 문제없이 운행하다가 겨울이 되면 말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영하에 머무는 기온과 눈, 비 등으로 인해 주행 환경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블랙아이스* 현상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블랙아이스(Black Ice) 기온이 갑자기 내려갈 경우 도로 위에 녹았던 눈이 다시 얼어붙거나 매연, 먼지 등이 눈과 뒤섞여 겹게 얼어붙는 현상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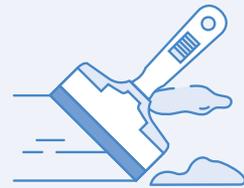
안전습관 Tip



블랙아이스 사고 예방을 위해 급가속과 잦은 급제동 자제하기



실내 환기 자주하며 줄음 예방하기



스크레이퍼로 겨울철 성에 관리하기

안전점검 Tip



차량 배터리 관리하기



부동액과 냉각수 점검하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워셔액 보충하기

COVER STORY

세종에서 슬기롭고 안전하게 겨울나기

이번 겨울은 유난히도 춥게 느껴지는 겨울입니다. 올 초 우리에게 다가온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거침없이 우리 일상을 파고들었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겨울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올 한해 동안 시민들의 몸과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지쳐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일상에서의 안전은 더욱 중요합니다. 개인의 안전에 대한 의식과 철저한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에서의 개인 방역수칙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생활안전에 대한 의식과 철저한 예방수칙은 아직도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사고에 취약한 겨울철은 어느 때보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안전문화매거진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의 여덟 번째 이야기, '겨울철 생활안전' 편은 유난히도 추운 이번 겨울, 조금이나마 슬기롭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생활 속 팁을 재미나게 담아보았습니다.

발행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편집위원	심준우 / 민경환 / 유정	디자인·제작	안전디자인연구소 오세이프
기획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에디터	오호라	디자이너	손은별
발행일	2020년 12월	취재	이윤숙(프리랜서 작가)	문의	044-300-3613~4

안전문화매거진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는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위원회,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안전디자인연구소 오세이프(OSAFE)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매거진의 발간으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안전에 관해 꼭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세상에 도움이 되는 가치'를 만들고자 합니다.



QR code
홈페이지(sejong.go.kr)와 QR 코드로도 안전문화매거진 <세종에서 안전하게 오래살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유증상자* 예방수칙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가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지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보는 [코로나19 공식페이지 ncov.mohw.go.kr](http://ncov.mohw.go.kr) 에서 확인하세요!